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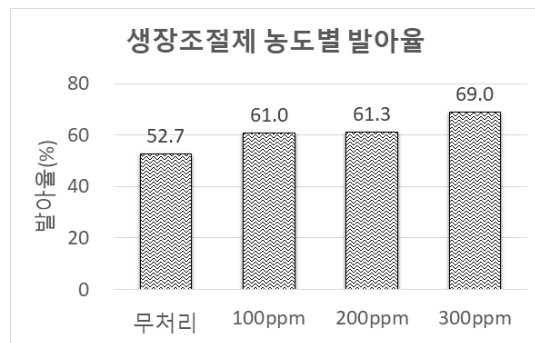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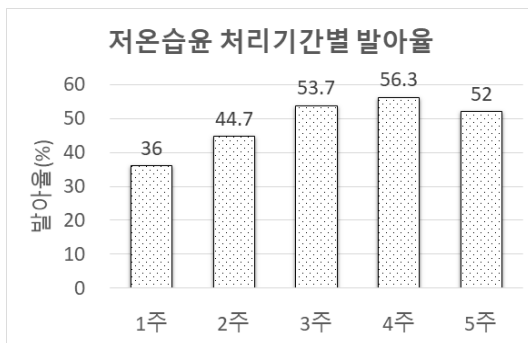
영아자 종자 발아율 향상 방법

» 배경 및 필요성

- 쓴 맛이 적어 소비자 선호도 높은 영아자에 대한 관심 증가
- 종자 발아율 향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정 저온습윤처리 기간 및 생장조절제 농도 설정이 요구됨

» 정보 내용

- 영아자 종자를 3℃에서 4주간 저온습윤처리 후 생장조절제인 kinetin 300ppm에 24시간 침지 한 뒤 파종하면 발아율을 69%까지 높일 수 있음



[저온습윤 처리기간 및 생장조절제 농도별 영아자 발아율 비교]

» 파급효과

- 신소득 작목 영아자의 발아율 향상을 통한 종묘 안정생산 효과

<세부 연구결과>

○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발아율

처리내용	발아율(%)				
	1주	2주	3주	4주	5주
3℃ 습윤처리	36±6.6	44.7±6.1	53.7±6.1	56.3±2.1	52.0±8.9

○ 생장조절제 농도별 발아율

처리농도 (ppm)	발아율(%)					
	무처리	BA	GA	kinetin	oryzalin	TDZ
100		57.7±5.5	51.7±2.1	61.0±9.5	55.7±4.9	26±4.7
200	52.7±7.6	62.3±4.7	44.7±8.1	61.3±2.9	50.7±3.2	29±11.2
300		49.7±3.5	54.3±4.9	69.0±8.7	51.3±7.6	24±2.9

○ 저온습윤처리 기간별 영아자 발아율 비교

